

농업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꾸어 먹거리를 만드는 생명산업이다. 먹거리가 제대로 생산되고 농업이 발전하면 자연생태계는 자연스레 보존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농업인들은 이 다양한 생명공간을 지키는 파수꾼이고, 생명체를 가꾸는 귀중한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와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발독재시대에 우리경제가 압축성장을 하면서 생겨난 도시 중심적인 풍조 때문이다. 지나친 산업화 지상주의는 농업과 농촌을 지킬 사람조차 없게 만들어 버렸다.

도시소비를 중심으로 이룩된 공업화 덕택에 우리들의 생활은 풍요롭게 됐지만, 농촌지역은 상대적인 소득저하로 활력을 잃었다. 농업은 도시로 떠나지 못한 노인과 중년의 부녀자들 몫이 되고 말았다. 농촌에 이렇게 공동화 현상이 생기면서 농촌지역 주민들도 삶의 생기를 잃고 있다. 반면에 과도하게 인구가 집중된 도시는 실업난, 주택난, 교통난 및 환경오염 등으로 사람 살기가 힘들고 고달픈 곳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도시는 아직도 젊은이들의 동경의 대상이다. 농업이 젊은이들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고,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으로 되어야 우



글 | 양병우

농산물 + 디자인 + 서비스,  
농업인의 6차 산업의 CEO

한국 농업의 미래



리 농업은 살아날 수 있다. 미래를 열고 돌아오는 농촌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첫째** 우리 기성세대는 서둘러서 삶의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농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고 산업(공업)화만이 살길이라는 편향적 경제관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우리 후세대들에게 농업이라는 직업은 자연과 함께 그리고 대지와 함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직종이라는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한다. 농촌에 우수한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말이다.

**둘째** 농촌지역 주민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이다. 청정한 환경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을 도시의 중심부에서 농촌으로 옮겨올 수 있는 도시민들의 결심이 필요하다. 향락 산업화되고 있는 도시 관광산업을 농촌 중심의 건전한 녹색 및 체험관광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지혜가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농업은 식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1차 산업이다. 먹을 것이 충분하지 못한 시대에는 보다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면 그만큼 농업인들의 소득은 높아졌다.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농업인들은 다수확품종의 개발에 맞추어 화학비료를 다량으로 사용하여 농산물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려 왔다. 이 녹색혁명을 통해 식량자급도 이룩했고 소득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1994년 UR이 타결되고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서 값싼 외국 농산물이 대거 수입되자 우리 농업은 설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제 2004년이면 쌀시장마저 완전 개방될 공산이 크다. 미국계배 수입이 농업소득의 6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쌀개방은 새로운 농업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 농산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고 소득도 보장될 수 있는 대체 작목을 찾는 일이 모든 농업인의 과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작목을 찾기란 쉽지 않다. 아니 애당초 찾을 수 없는 것을 찾고 있는지 모른다. 농산물시장 개방 이후에도 농업인들은 아직도 땅에서만 모든 부가가치를 찾는 데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 땅이 아닌 시장의 변화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